

배구 김연경, '제9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

최우수상 골프 박민지

골프 박세리 레전드상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제9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김연경은 14일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1000만원.

세계적인 스타로 해외 무대에서 한국 배구의 진가를 알려온 김연경은 올해 10년 만에 국내로 복귀, 여자 프로 배구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 2월에는 여자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이끌고 부상 투혼을 펼치며 도쿄를 립픽 출전권 획득에 큰 힘을 보탰다.

김연경은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계신데도 내가 상을 받게 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스포츠인들에게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MBN여자오픈에서 사상 처음 2연패에 성공한 박민지(NH투자증권)에게 돌아갔다. 박민지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사이클 세계트랙선수권에서 국내 최초로 은메달을 따며 경륜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이혜진(부산지방공단 스포포)과 첫 여자국수전을 4연패한 여자 배드민턴 1위 최정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영플레이어상은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며 올해 잇따라 한국 주니어 기록을 갈아치운 박혜정(안산공고)이 받았다.

인기상은 올 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는 박지수(KB스타즈)가, 레전드상은 여자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인 박세리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감독이 차지했다.

육상계의 대모로 활약해온 백옥자는 공로상을,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팀을 맡아 성과를 내은 이재남 코치와 30여개 남녀 태권도 실업팀 중 유일한 여성 지도자인 박은희 성주군청 감독은 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스포츠의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들의 발전을 격려하고자 2012년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토리코리아가 후원한다.

매월 한국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하며, 1년 동안 국내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선수들을 12월 연말 시상식을 통해 시상한다.

런던올림픽이 열렸던 2012년 1회에는 양궁의 기보배가 대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2014년 리듬체조 손연재, 2015년에는 골프여제 박인비, 2016년에는 리우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2관왕에 올랐던

9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수상자

- ▲대상-김연경(배구)
- ▲최우수상-박민지(골프)
- ▲우수상-이혜진(사이클), 최정(배드)
- ▲영플레이어상-박혜정(역도)
- ▲인기상-박지수(농구)
- ▲레전드상-박세리(골프)
- ▲지도자상-이재남(장애인조정), 박은희(태권도)
- ▲공로상-백옥자(육상)

장혜진, 2017년에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와 최민정이 공동 수상했다.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육상의 정혜림과 사이클 나이아름이 공동 수상했고, 지난해엔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고진영이 영예를 안았다.

김미희기자



김연경(오른쪽)과 류호길 MBN 대표이사. (사진=MBN 제공)

최주환 잡은 SK, 보호선수 20명 누구?

SK, 오늘 두산에 명단 전달...두산 18일까지 선택

자유계약선수(FA) 최주환(32)을 영입한 SK 와이번스가 이제 두산 베어스에 보상을 해야한다.

SK는 지난 11일 최주환과 4년, 총액 42억원(계약금 12억원·연봉 26억원·옵션 4억원)에 계약했다.

올해부터 FA 등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최주환은 A등급 선수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줘야한다.

최주환의 FA 계약이 12일 공시돼 SK는 15일까지 보호선수 20명 명단을 두산에 줘야한다. 두산은 보호선수 명단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상 방법을 선택해야 알려야 한다.

SK는 최주환 영입과 동시에 보호선수 20명 명단을 정했다. 류성규 SK 단장은 "11일 운영팀 전원과 육성팀, 스카우트팀, 홍보마케팅팀이 모두 모여 보호선수 20명 명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단장은 "두산은 의식하기보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선수를 고려해 보호선수 20명 명단을 결정했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며 명단을 짜"고 전했다.

보호선수와 보상선수에 군 보류선수, 당해 연도 FA, 외국인 선수, 당해 연도 FA 보상 이적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SK 선발전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문승원과 박종훈은 보호선수로 묶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투수 쪽에서 김정민, 김태훈, 김택형, 박민호, 서진용, 이건욱 등 불펜의 주축이거나 5선발 후보인 선수들도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

될 전망이다. 2019년과 2020년 1차 지명 신인인 백승건과 오원석도 보호 대상이다.

주전 포수이자 2021시즌 주장을 맡은 이재원과 내년 시즌 백업 포수 가능성이 높은 이흥련, 이현석도 보호선수 명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최정과 중심타자 한동민, 미래 외야 주전인 최지훈도 지켜야 할 선수다.

내부 FA인 김성현을 둘러앉히고, 최주환을 영입하면서 내야가 한층 탄탄해진 SK는 나머지 자리를 젊은 투수 위주로 꾸렸을 것으로 보인다.

내야에서 최주환이 주전 2루수를 맡게 될 경우 백업을 맡을만한 내야 자원이 많다.

SK가 육성에 공을 들인 김장평과 박성환은 보호선수 명단에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징계에서 풀린 강승호가 돌아오고, 올 시즌 주전 경쟁을 펼친 최환, 최준우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진 선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산은 현금으로만 8억1000만원을 받거나 5억4000만원과 선수 1명을 보상으로 택할 수 있다. 최주환이 SK 유니폼을 입는 등 내부 FA 선수가 7명에 달했던 두산은 5억4000만원과 선수 1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산은 앞서 보상선수로 재미를 봤던 팀이다.

2018시즌이 끝난 뒤 FA로 풀린 포수 양의지를 NC 다이노스로 보낸 두산은 이형범을 보상선수로 영입했다. 이형범은 지난해 67경기에 등판, 6승 3패 19세이브 10홀드 평



내야수 최주환이 SK 와이번스와 FA 계약을 맺었다. (사진=SK 제공)

균자책점 2.66을 기록하며 두산 불펜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두산은 2016시즌이 끝난 뒤 삼성 라이온즈와 FA 계약을 맺은 이원석의 보상선수로 포수 이흥련을 선택했다.

당시 양의지를 보유하고 있던 두산에 포수 자원이 넘치던 상황이라고 복무를 앞둔 이흥련 영입이 다소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두산은 이흥련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했다. 두산은 5월말 이흥련을 SK에 내주고 이승진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올 시즌 두산에서 2승 4패 5홀드 평균자책점 5.61을 기록한 이승진은 포스트시즌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대를 높였다.

두산은 내부 취약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상선수를 선택할 전망이다. 다만 취약 포지션을 보완할 마땅한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의외라 여겨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서선욱기자

호날두, 멀티골로 유벤투스 100번째 경기 자축

유벤투스 이적 후 79골 "다음 목표는 100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이탈리아) 100경기 출전을 멀티골로 자축했다.

호날두는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2020~2021 이탈리아 세리에A 제노아전에서 두 골을 넣었다.

호날두는 1-1로 맞선 후반 33분 후반 코너킥이 들어온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어 결승골을 기록했다.

썸머포도 그의 몫이었다. 호날두는 후반 44분 다시 한 번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골문 상단에 꽂히는 득점을 이끌어냈다.

2018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유벤투스로 향한 호날두는 이날 포함 총 100차례 공식 경기에서 79골을 넣었다. 올 시즌에는 리그 10골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와 득점 공동 1위를 질주 중이다.

호날두는 경기 후 트위터를 통해 "팀을 위해 두 골을 넣는 것보다 100경기 출전을 축하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적은 뒤 "자랑스럽다. 다음 목표는 유벤투스에서의 100골"이라고 밝혔다.

호날두의 멀티골로 유벤투스는 제노아를 3-1로 제압, 승점 23(6승5무)으로 4위가 됐다.

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제노바의 루이지 페라리스에서 열린 2020~21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11라운드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출전해 경기하고 있다. 호날두는 후반 33분과 44분 페널티킥으로 각각 역전 골과 썸머포를 넣으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은퇴선수협 "KBO, 비상적인 키움 철저히 조사해달라"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회장 안경현)가 키움 히어로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한은회는 14일 "최근 불거진 키움의 소속 선수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지시와 불법으로 팬을 사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허민 이사회 의장이 키움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를 한 것에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됐다.

당시 이 장면은 팬이 영상으로 찍었고, 기사화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태근은 "허민 의장 투구시 영상촬영을 한 팬에게 언론사 제보 여부와 이

유를 자신에게 확인해달라는 지시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키움은 "구단이 CCTV를 확인한 이유는 보안 점검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구단이 팬을 사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은회는 키움의 행동이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물론, 선수들의 권익과 팬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은회는 "계속되는 논란에도 한국프로야구와 선수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프로야구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 키움에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소속 선수들에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시한 키움의 행태와 이전 수 차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시를 행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한국프로야구 존재의 이유인 프로야구 팬을 감시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은회는 KBO에 키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정기자

삼성에서 방출된 정인욱, 한화 유니폼 입는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뒤 새 팀을 찾던 정인욱(30)이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는다.

한화 관계자는 13일 "정인욱이 지난 7일 입단 테스트를 받았으며 최근 계약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며 "계약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2009년 삼성에 입단한 정인욱은 2010년 1군에 데뷔했으며 미래 선발진의 한 축을 책임질 유망주로 관심을 모았다.

1군 데뷔 2년차인 2011년 6승 2패 평균자책점 2.25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인 2016년에는 주로 선발로

뛰며 27경기에 등판해 111이닝을 소화했다.

정인욱은 2018년 19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끝내 기량을 만개하지 못했다. 경쟁에서 밀리면서 출전 기회도 줄어들었다. 2020시즌에는 5경기 등판에 그쳤다.

결국 정인욱은 지난달 초 삼성으로부터 방출됐다.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개인 운동을 이어가며 현역을 연장할 새 팀을 찾아온 정인욱은 입단 테스트를 통해 한화에 새 동지를 틀게 됐다.

김민정기자



손흥민·케인, 20~21시즌 EPL 12골 합작

잉글랜드 프로축구 대표 '환상의 짝꿍' 자리매김

잉글랜드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환상의 짝꿍'으로 자리매김한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합작하며 프리미어리그(EPL) 단일 시즌 최다골 합작 기록에 한 걸 차이로 따라붙었다.

손흥민과 케인은 13일 오후 11시 1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0~2021 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합작했다.

전반 23분 페널티박스 정면 외곽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기술적인 중거리슛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낮고 빠른 궤적의 강력한 슈팅이었다.

EPL에서 합작한 12번째 골이다. 케인이 손흥민의 8골을, 손흥민이 케인의 4골을 도왔다. 역대 리그 기록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흥민과 케인이 겨우 12경기 만에 경기당 1골을 만들며 역대 기록에 단 한 골만 남겨둔 것이며, 역대 EPL 최다 골 합작 기록도 멀지 않았다.

뉴시스



손흥민(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선제골을 넣고 도움을 준 해리 케인과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리그 10호 골을 비롯, 추가 시간 케인의 골에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